‘송기숙 기념사업회’ 광주서 출범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기념사업회’ 법인 등록이 최근 완료돼 기념사업회가 본격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에서 열린 창립총회 모습. 〈기념사업회 제공〉

‘민중문학 거목’ 남도 대표 작가…이사장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의로운 삶과 문학세계 조명…연구위원회 등 주축 사업 준비 박차

지난 2021년 별세한 송기숙 소설가는 남도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한국 소설문단에 큰 족적을 남긴 문단의 큰 어른이었다. 고인은 민족 문학에 뿌리를 내린 우리시대의 마지막 리얼리스트라 평가될 만큼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궜다.

특히 대하소설 ‘녹두장군’은 민중해방의 선구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그린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민초들의 힘을 결집해 부패한 봉건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녹두장군의 열망과 사상을 핍진한 문체로 그렸다. 전라도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을 작품 속에 녹여내 독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임헌영, 기념사업회)가 광주에서 정식 출범했다.

20일 기념사업회 전용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등록이 완료됐다. 법인 명의의 통장도 발급되고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도 꾸려졌다.

전 위원장은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만큼 하반기 추진사업 등에 대한 중지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20일 저녁 광주에서 부이사장단이 모였다”며 “회보 발행 등을 포함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2022년 12월 5일 광주 민주의 집에서 열린 창립 추진모임이 모태가 됐다. 이날 문학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은 문학인이자 지식인으로 독재시대에 맞서 정의롭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고인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논의 끝에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3일 5·18기록관 다목적강당에서 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에 박석무 이사장, 부위원장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집행위원장은 전용호 소설가 등이 선임됐다.

발기인대회에는 김경일 신부, 장헌권 목사 등을 비롯해 전남대 민교협 김병인 교수, 전남대 5·18연구소장 민병로 교수, 문학계 나종영 시인, 채희윤 소설가, 작가회의 정양주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어 창립총회는 지난해 12월 2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위원장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선임됐다.

기념사업회 광주 출범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고인의 고향인 장흥에서 기념사업회가 꾸려진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송기숙 문학제, 송기숙 기념 전라남도 청소년 백일장. 송기숙 기념제 등이 추진됐다.

1936년 장흥에서 태어난 송기숙 작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유신체제,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은 산증인이었다. 선생의 창작활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

특히 1978년 6월 27일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주축이 돼 발표한 ‘우리의 교육지표’는 학원의 민주화를 주장했던 선언이었다. 전남대 인문대학 건너편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교육지표마당과 ‘우리의 교육지표’를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다.

기념사업회 출범과 맞물려 활동이 기대되는 것은 연구위원회의 활동이다.

지난 3월에 발족한 연구위원회에는 김선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으로 조은숙, 이영송, 하성흡, 김만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들은 장단기 기념사업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기숙 소설 관련 논문 등을 발표한 조은숙 박사는 “선생님은 근현대사의 질곡을 펜 하나로 헤쳐왔으며 무엇보다 독재의 폭압에 굴하지 않은 ‘행동하는 지식인’의 삶을 사셨다”며 “연구위원회 발족과 기념사업회 출범을 계기로 선생님의 의로운 삶과 문학세계 등이 다양한 사업을 토대로 조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조경란 단편 ‘그들’

강태식·반수연 작가 등 우수상 6명…수상작품집 다음달 출간

조경란 소설가

올해의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조경란의 단편소설 ‘그들’(계간 ‘문학동네’ 2024 여름호 수록)이 선정됐다고 문학동네가 20일 밝혔다.

조경란은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소설집 ‘불란서 안경원’ ‘나의 자줏빛 소파’, ‘일요일의 철학’과 장편소설 ‘식빵 굽는 시간’, ‘가족의 기원’ ‘혀’ 등을 썼다. 문학동네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김승옥문학상은 ‘무진기행’, ‘서울의 1964년 겨울’ 등을 쓴 소설가 김승옥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2013년 제정된 문학상이다. 등단 10년 이상 작가들이 한 해 발표한 단편소설 중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수여하며, 대상 상금은 5천만원이다.

올해 우수상에는 강태식, 반수연, 신용목, 안보윤, 이승은, 조해진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들에게는 상금 500만원씩이 주어진다.

수상작품집은 내달 출간될 예정이다. 시상식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승옥이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전남 순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옥문학상 주관사인 문학동네는 2024 문학동네신인상도 함께 발표했다.

시 부문은 이현아의 ‘비평’ 외 4편, 소설 부문은 주나영의 ‘우리의 산책’, 평론 부문은 단요의 ‘참조와 창조—도시의 교환 제의, 그리고 대항 형식으로서의 텍스트’가 당선됐다.

/연합뉴스

여름 끝자락 흥겨운 우리 가락

광주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28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명맥을 잇기 위한 ‘판소리 감상회’가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올해에는 오는 28일을 비롯해 9월 25일, 11월 27일까지 총 3회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립창극단이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창극단 창악부 단원들의 소리와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 등으로 채워지는 공연으로, 삶의 희로애락을 전통 소리에 투영했다.

공연의 막은 창악부 상임단원 김정미의 단가 ‘고왕금래’로 연다. 인간의 부귀영화와 생사여탈을 통해 느끼는 지혜를 주제 삼아, 인생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자라가 한 곳을 바라보니 호랑이가 덜렁하게 앉았는디/ 아, 야를 토끼로 봤던 모양이여 화상을 갖고 갔지만 미처 내 펴 보지 못하고(…)”(‘수궁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이어지는 ‘수궁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은 토끼 간을 구하던 별주부가 실수로 호랑이를 부르며 펼쳐지는 해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은 허승희 소리꾼의 목소리에 실린다. 곽씨 부인이 죽음에 이르며 아이의 이름을 ‘청’이라 지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뒤, 이를 알게 된 심봉사가 실성하는 장면이다.

끝으로 창악부 상임차석 한혜숙은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황후가 된 심청이 황성에서 맹인잔치를 열고, 이에 참석한 심봉사를 만나는 내용이다. 북장단은 김준영 고수가 맡으며 해설에 박승희(예술감독 직무대행).

박승희 예술감독은 “광주 전통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역할을 하는 ‘판소리 감상회’ 세 번째 공연을 펼친다”며 “올해는 협연자나 외부 단원 없이 오직 창극단 단원으로만 무대를 구성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학’, 수도권 집중 시대 해답을 묻다

호남학 연구기관들 포럼 개최

21세기는 지역의 시대이자 지방분권 시대다.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토대로 한 제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더욱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길목에서 지역학은 지역뿐 아니라 후세대들에게도 중요한 가치의 근거이기도 하다.

호남학 연구 기관들이 지역학을 함께 고민하고 사유해볼 수 있는 연구포럼이 열렸다.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회장 홍영기)는 20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예술관 리사이트홀에서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연구포럼은 8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에 대해서는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은 지역 대학 및 대학원 사례를 통해 점검했으며 시도민을 위한 지역학 교육은 전북인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실례를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변주승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홍성덕 전주대 교수, 박정민 전북대 교수, 한정훈 목포대 교수, 김명랑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실장 등이 추진 방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 있는 실무자를 비롯해 대학 등 유관 기관이 지역학을 토대로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이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남학 연구진흥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출범 후 현재까지 총 17개 유관기관, 대학, 학회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연구 포럼에 앞서 행사 당일에는 협의회 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호남학 연구와 진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